

(2024. 4. 15)

## I. 이란-이스라엘 확전과 전망

이란의 시리아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지난 4.13일 자정(현지 시간) 이스라엘 군과 정부 기관에 대해 대대적 공습을 단행. 이에 글로벌 금융경제 부문은 급격한 위험회피 심리가 작용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 및 국제유가 급등 전망 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등에 따른 국내 금융불안 전이 등이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지속하게 할 것으로 판단. 이에 글로벌 금번 전쟁의 확산 가능성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미칠 영향을 통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함

### ■ 이란-이스라엘 추가 확전 가능성 점검과 주요 금융 변수 예측

- (이란-이스라엘의 확전 가능성) 이란의 대대적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바, 추가 확전 가능성이 상존한 국면. 다만, 국제사회와 미국의 이스라엘 반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점과 이란의 공습이 이전 하마스때와는 달리 군과 정부 일부 기관에 대한 공습에 그쳤다는 측면이 사태 확산이 진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보임.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은 하마스 뿐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공멸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확전 전운은 상존한 것으로 보임  
반면, 미국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 확산은 바이든이 바라지 않는 바인 상황(이는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바이든의 대선 전 경제 실정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보이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뎌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 의 강하고 적극적 중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 여기에 이스라엘 내부 온건파들의 네타냐후 총리 정책에 부정적 일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스라엘의 적극 공세는 시차가 걸릴 수 있는 가운데 극적인 휴전 가능성도 일부 예측해볼 수 있다고 판단
- (확전 가능성에 따른 주요 금융 변수 방향성)
  - 우선적 국제유가가 추가 확전 시 100달러를 상회 최대 120~130달러 선까지 올라서 '24년 내 설수 있을 우려가 있어 보임. 하지만 최근 이란 공습이 미국에 의해 이미 예측되었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추가 확전이 되어도 서방의 중재 등으로 최소화하는 경우 100달러 상회는 쉽지 않을 전망
  - 상기의 국제유가 상승 등이 제한적이더라도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다소 퇴색이 기정화되는 분위기에 따라 적어도 2분기중 강달러의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

## II.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 ■ 금융 시장별 영향 점검

- 이란-이스라엘 확전의 현 시점까지에서의 국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 시장 상황의 완충 능력은 다소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

- 다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민감도는 작은 충격에도 급변하는 속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화유동성 관리에 주의할 필요

#### • (국내 금융시장 외화자금 완충력은 견조)

**총 외채대비 단기외채:** '23. 4/4분기 말 기준 총 대외채무 6,636억 달러로 '22년 4/4분기말 (6,652억 달러) 대비 16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기외채가 +287억 달러 증가했으나, 단기 외채가 -303억 달러 더 크게 감소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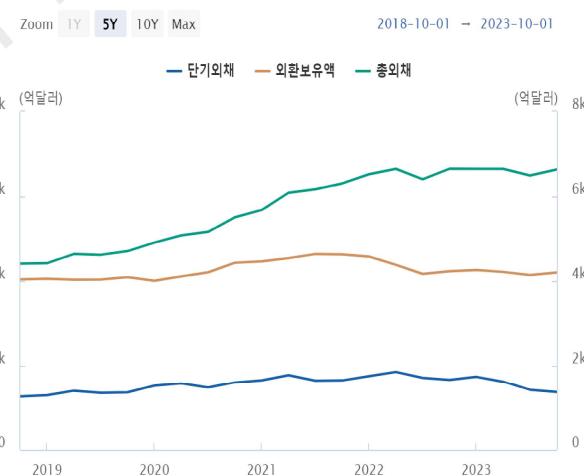
이에 1년 미만 단기외채는 1,362억 달러로 총외채의 20.5%를 차지. 이는 '08.9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1.9%의 절반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

**외환보유액:** '24.3월말 기준 4,192.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8.2억 달러 감소. 이는 국내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도 미국 달러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 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

#### 단기외채비율 및 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액 및 대외채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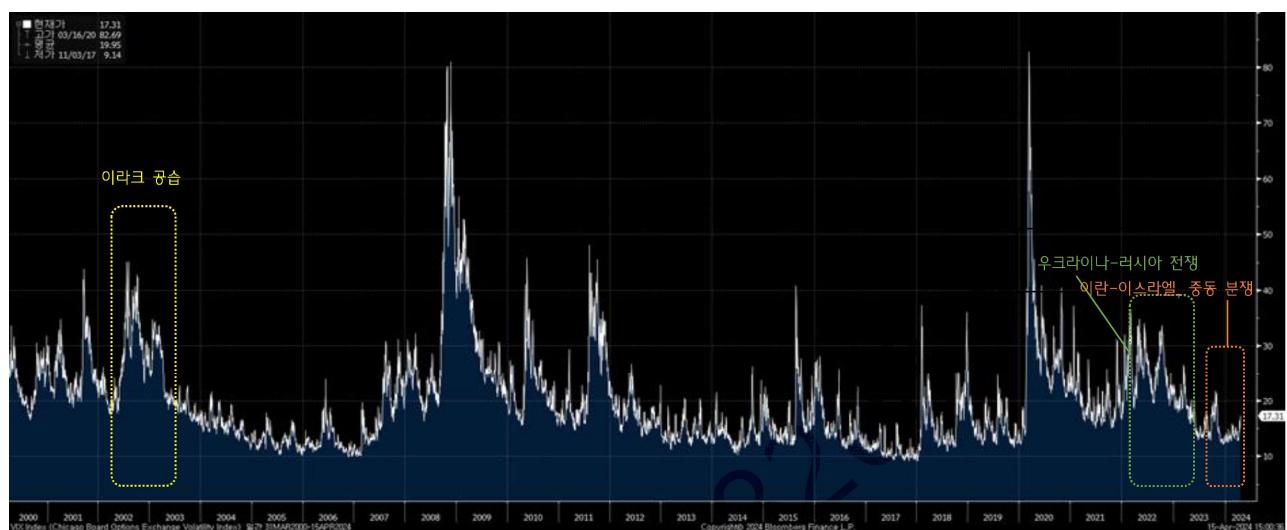
**통화스왑 현황:** '22년말 현재 1,382억 달러 상당(사전한도 없는 캐나다 제외)으로 ASEAN+3 회원국의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포함 8개국과의 통화스왑 라인 체결

### III. 글로벌 공습 영향의 특징적 현상과 이에 따른 달러 방향성 점검

#### ■ 금융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 확대

- 이미, 알려진 공습, 또는 전쟁에 의한 영향(다수가 미국 정보에 의해 공표된 측면)은 공습 이전부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습 이후 변동성이 완화되지만 일정 시차를 가지고 다소 지속하면서 완화되는 특징이 있음

<그림> 2000년 이후 주요 전쟁 공습시점에서의 변동성(VIX) 지표



- 따라서 금번 공습도 t-2일부터 t+2일까지의 변동성 확대가 최대를 보일 전망이나, 만약 추가 확전에 대한 시장 심리의 안정이 크게 후퇴한다면 위험회피에 따른 달려 강세 영향이 국내외환시장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달려 방향성 점검

- t+2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습이 제한적이라면 달려 강세도 완화될 수 있겠으나, 작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에 따라, 또한 후티반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 할 수 있는 여력이 다소 이어질 수 있어 보임
- 이에 따라 유가의 100달러 선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달려/원 환율도 최대 1,400원 터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하나은행